‘커피 한잔’에 담긴 세계의 문화사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

마크 펜더그라스트 지음

오늘날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문화이자 정치이며 인권이기도 하다. 현대인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각별하다. 한 잔의 커피에 복합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 샤를르 모리스 탈레랑은 커피를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거우며 사랑처럼 달콤하다”고 했다. 예술가들에게 커피는 기호품을 넘어 신비로운 마력을 지닌 촉매제로 상정되기도 한다.

커피의 역사를 다룬 책이 나왔다. 미국 출신 작가 마크 펜더그라스트가 펴낸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는 제목만큼이나 도발적이다.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인권, 전쟁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

책은 커피의 유래부터 많은 이들이 커피를 마시게 된 과정을 세세하게 짚어낸다. 한마디로 커피로 쓴 세계사 내지 문화사라고 할 수 있다.

커피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하나의 격식이었다. 10세기경 페르시아인 의사가 커피를 지면에 소개한 뒤로 커피하우스가 급속도로 생겨난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을 계기로 해서는 커피하우스가 ‘혁명의 본부’로 바뀌게 된다. 시민혁명과 같은 수많은 혁명이 이곳에서 태동되었던 연유다.

17세기에는 고주망태가 된 남자들이 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 각 하우스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모이는 이들에 따라 나름의 색깔을 만들어 냈다. 1960년대 미국 군 기지 외곽에 들어선 GI(미군) 커피하우스는 ‘반전 커피하우스’로 불리었다. 반전의식이 강한 군인들이 주로 드나들었던 탓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커피를 전 세계로 퍼뜨린 일등공신은 전쟁이다. 1차,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인스턴트 커피 한잔에 위로를 받곤 했다. 참혹한 전장에서의 ‘조지 한 잔’은 많은 미군들을 평생 커피 애호가로 만들었다.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주도권을 쥔 미국은 커피의 주도권 또한 갖게 된다. 미국은 자신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커피 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커피 가격을 놓고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지금도 미국은 콜라보다 커피가 저렴하다)

오늘날의 커피는 광고와 마케팅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피업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를 정도로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커피 브랜드 별, 또는 커피 대용품이나 다른 음료와의 판촉경쟁은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새 장을 열었다.

광고인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 광고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소비자들에게 커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각인시킨 건 역시나 광고였다.

그렇다면 현재의 커피 문화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일까. 스페셜티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스타벅스라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을 탄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커피를 맛보자는 흐름이 생겨났다.

스페셜티 커피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은 최고의 생두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들의 커피 맛에 대한 집착과 모험은 지나칠 정도다. 물론 품질 향상이나 공정무역을 위해 애쓰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혹자는 커피를 “인류 최후의 마약”이라고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혹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는 복잡다단한 세상사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을유문화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삶이란,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사월의 미, 칠월의 솔’

김연수 지음

올해로 등단 20주년을 맞는 김연수가 다섯 번째 소설집을 펴냈다. 이번에 발표한 작품집에는 표제작 ‘사월의 미, 칠월의 솔’을 포함해 모두 11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이번 작품집에 실린 소설은 단순히 “너를 이해한다”는 위로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보다는 삶이 그런 거다, 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그려낼 뿐이다.

표제작 ‘사월의 미, 칠월의 솔’은 압도적인 죽음의 풍경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이모는 사랑했던 두 남자를 잃고 서귀포에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다. 배우였던 시절 유부남이었던 영화감독과 석 달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다. 어느 날 함석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가리키며 감독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개별적인 고통을 기억하는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작가의 시선은 깊고 투명하다. 최근 업로드 된 문학동네 팟캐스트 ‘문학 이야기’에서 김연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문제는 다르다. 속일 수가 없다.”

김연수 소설이 지닌 매력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삶과 이 세계를 제 식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려 애쓰고, 결국은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김연수 소설의 힘이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감성에 심오함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시적사유

‘무제 시편’

고은 지음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고은 시인이 묵직한 시집 한 권을 펴냈다.

2011년 ‘내 변방은 어디 갔나’를 발간한 지 2년 만에 펴낸 ‘무제 시편’에는 총 607편이 수록돼 있다. 중량감으로 보나, 작품성으로 보나 그에게 ‘세계적인 시인’이라는 찬사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수사가 아니다.

더구나 이 시들은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고작 반년 만에 씌어진 작품이라고 한다. 여든을 넘기고도 식을 줄 모르는 창작열과 거침없이 넘나드는 도저한 사유, 분방한 언어는 왜 그가 노벨문학상에 근접한 시인인지를 말해준다.

“책을 덮는다 캄캄하다 캄캄하기만 하다/ 겨우/ 이 지상에는/ 붓다나 누구밖에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인간을 긍정하는 것도/ 인간을 부정하는 것도/ 인간밖에는/ 아무도 없다/…내 생애란/ 이 세상의 아무도/ 알 바 없는 그것/ 의미의 무의미 그것/ 캄캄하다/ 캄캄하다 자꾸”(‘무제 시편 529’ 중)

시인의 상상력에는 경계가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펼쳐 보이는 시적 사유는 특유의 감성과 맞물려 심오함을 준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예감과 역사의식은 삶에 대한 통찰력과 맞물려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된다. 오늘 내딛는 시인의 발길은 우리 시의 독보적 성취를 넘어 한국문학의 자랑으로 비약한다.

〈창비·3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앤 K. 롤링이 가명으로 쓴 탐정소설

‘쿠쿠스 콜링 1·2’

로버트 갤브레이스 지음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신작 ‘쿠쿠스 콜링’이 나왔다.

이 작품은 영국 일간지의 집요한 취재로 실제 저자가 조앤 K. 롤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주었다. 그간의 성공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작품으로만 인정받으려는 작가의 시도로 풀이된다.

소설은 군인 출신의 사설탐정인 코모란 스트라이크가 톱모델의 갑작스런 죽음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기존의 탐정 소설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등장인물이 지닌 뚜렷한 개성이 강점이다.

슈퍼모델 룰라 랜드리의 죽음용의에 얽힌 미스테리는 용의자를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과거의 탐정소설이 희생자의 과거에 대해 간략히 묘사하고 넘어가는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작품을 읽다보면 세계적인 작가 조앤 K. 롤링의 신작인지, 신인작가 로버트 갤브레이스의 데뷔작인지 따질 겨를이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문학수첩·각권 1만2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4년 첫번째 주요 트렌드 ‘스웨그’

〈건들거리면서 뻐기다〉

‘트렌드 코리아 2014’

김난도·전미영 외 지음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교수 등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4년 전망 ‘트렌드 코리아 2014’가 나왔다.

해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가 2014년의 첫 번째 주요 트렌드로 ‘스웨그(swag)’를 선정했다.

원래 ‘약탈품’, ‘장물’이란 뜻의 ‘스웨그’는 힙합 뮤지션들이 즐겨 쓰는 단어다.

진지함이나 심각함, 무게감과는 담을 쌓은 이 생소한 단어가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밖에 정신적 힐링에 지친 사람들이 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과 자세하고 논리적인 설명보다 짧고 강렬한 돌직구에 더 호응하는 세태를 분석한다.

기존의 것들에 새롭고 창의적인 재해석을 내리는 소비자들의 움직임과, 연출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행운을 바라는 소비심리도 들여다본다.

〈미래의 창·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유럽 산업유산, 창조 공간으로 재활용 되다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김정후 지음

문을 닫은 채 방치된 공장은 ‘흉물’이 되고 만다.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본래의 기능과는 다른 역할로 새롭게 활용되는 순간부터 그곳은 ‘창조’의 공간이 된다. 테이트모던이 그랬다.

템스 강변에 자리한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개조한 테이트모던은 개장과 더불어 일약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 대열에 합류했다.

건축가이자 도시사회학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탐구해온 런던대 지리학과 김정후 박사가 이번엔 유럽 산업유산의 재활용에 주목했다.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는 김 박사가 영국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찾아다닌 유럽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만난 산업유산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재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책이다.

파리, 런던, 빈, 카를스루에, 헬싱키, 마드리드, 뒤스부르크, 에센,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볼로냐, 더럼, 취리히 등 유럽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는 산업유산의 재활용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그는 유럽 어느 도시의 성공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시사회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대상을 살피고, 이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산업유산이 그 도시에 자리 잡은 역사적 연원부터 그것이 그 도시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매 꼭지가 시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돌베개·1만6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간

▲사람의 얼굴 외=제21회 전태일문학상 수상작품집. 시 부문에는 권상진의 ‘영하의 날들’이, 소설 부문에는 작품집 표제작으로 게재된 이종하의 장편 ‘사람의 얼굴’이, 생활·기록문 부문에는 신정임의 ‘아줌마 백화점에 가다’가 당선됐다. 소설 ‘사람의 얼굴’은 가방공장 공원인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학생운동가를 통해 삶과 의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시대적 상황과 함께 진지하게 담아냈다. 〈사회평론·1만8000원〉

▲캄프토사우루스 미식 기행=거대 공룡의 시대, 쥐라기 후기로 안내한다. 책의 주인공인 공룡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구의 시작과 함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식물들,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만난다. 퍼즐 같은 화석 정보와 해박한 과학 지식을 토대로 저자가 직접 그린 공룡의 세밀화, 대담한 상상력이 만들어 낸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공룡시대 서바이벌 가이드는 이 책만이 갖는 또 다른 매력이다.

〈함께읽는책·1만5000원〉

▲도시로 보는 유럽통합사=‘도시’라는 주제를 통해 유럽과 유럽통합에 접근한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유럽의 도시들이 어떻게 유럽의 핵심을 형성하고 유럽통합을 이뤄냈는지를 그려내고자 기획됐다. 영원의 도시 로마, EU의 수도 브뤼셀 등 유럽 열네 나라의 열여덟 개 도시를 선정해 각 도시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함께 유럽연합체제 아래서의 새롭고 특별한 역할을 조명한다. 〈책과함께·2만원〉

▲찍지 못한 순간에 관하여=젊고 야심만만한 신진 사진가에서 토드 히도나 에멧 고윈 같은 거장에 이르기까지 62명의 내로라하는 사진 작가들이 모여 자신이 찍고 싶었지만 찍지 못했던 사진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진기를 잠시 내려놓고 펜을 들어 자신이 어떤 사진을 찍지 못했거나 찍지 않았던 때의 상황을 묘사한다. 자유로운 형식과 시선으로 저마다 개성이 담겨 있다. 〈현실문화·1만4500원〉

▲친절한 과학책=자연은 왜 사랑을 발명했을까? 1등만으로 구성한 팀은 왜 1등이 될 수 없을까? 정말로 웃으면 복이 올까? 과학의 논리로 풀어내는 일상의 비밀. 전형적인 문과형 인간이었던 저자 이동환이 매년 100권이 넘는 과학책을 10년 넘게 파고들어서 찾아낸 일상과 과학의 연결 고리를 재미있고 친절하게 풀어내고 있다. 과학 전공자로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과학 책이다. 〈꿈결·1만4800원〉

▲한국의 디자인=오리엔탈리즘에서 디자인 서울까지, 통사 형식을 갖춘 최초의 한국 디자인사.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통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국 디자인만이 가진 독특한 이야기를 시대별로 담았다. ‘조선 색’, ‘한국의 정체성’, ‘국제화’ 등의 논쟁으로 이어지며, ‘한국적’ 디자인이나 건축, 글로벌 디자인 등의 쟁점을 탄생시켰다. 저자 김종균은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사회와 문화상을 디자인의 시대적 특징으로 환원해 풀어내고 있다.〈안그라픽스·3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

▲숙제보다 어려운 일=캐나다 아동도서센터가 선정한 베스트북. 방학 동안 부모와 떨어져 이모와 지내게 된 내성적인 소녀 엘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고 더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된다. 사춘기를 겪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짐’과 거리를 두고 건강하게 자라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풀빛미디어·1만1000원〉

▲무민의 잊지 못할 비행=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여행을 떠나는 무민 그림동화 시리즈. 자유와 사랑, 평화 등 철학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 절로 탄성이 나온다. 위험천만한 모험 가운데에서도 뜻깊은 우정을 만나게 해 주고 아이 뿐 아니라 나아가 어른까지 동심의 세계로 인도한다.

〈어린이 작가정신·9000원〉

▲똑똑해지는 약 외=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섬 와이헤케에서 사는 서머셋 부부의 그림책. 장난꾸러기 메메 시리즈 첫번째 이야기 ‘똑똑해지는 약’과 두번째 이야기 ‘레모네이드가 좋아요’가 나왔다. 글을 막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신나는 그림책이다.

〈북극곰·각 권 1만5000원〉

▲열 살에 배운 법, 백 살 간다=알쏭달쏭 생활 속 법 이야기. 가정, 학교, 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15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관련 법을 소개하고 있어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에 물어보아요’에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 정보를 알려준다.

〈가교출판·1만2000원〉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힘없고 착해빠진 엉뚱 아빠와 조폭이 꿈인 불량 아들 영웅이의 진짜 영웅 되기 대작전. 낙천적이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한 어린이 같은 아빠, 돈을 벌겠다며 3년전 집을 나간 엄마, 학교에서 엇나가기만 하는 열두살 영웅이. 부자(父子)가정 아이의 심리와 행동 등을 가슴 아프지만 유쾌한 일상으로 속속들이 풀어냈다.

〈파란자전거·9500원〉